

고용노동부 - 취약계층 취업촉진

<사업 기본정보>

- 사업유형/세부유형 : 고용서비스사업/취업지원
- 소관부처/담당부서 : 고용노동부/고용서비스정책과
- '21년 평가등급 : 성과등급 미산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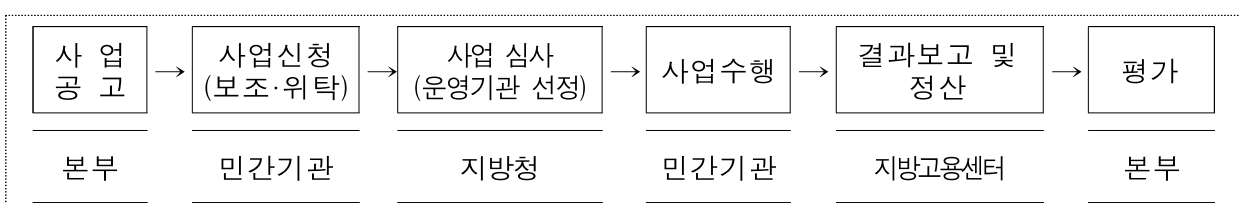
1 사업 주요 내용

- ☐ (사업 목적) 고용센터 직접 또는 민간기관 위탁으로 취업촉진 프로그램 등 고용서비스를 제공하여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도모
- ☐ (사업내용) 취업촉진 프로그램 및 취업알선 위탁사업비 등 지원하며 취업촉진 프로그램 중 심리안정지원, 구직자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위탁사업은 고용센터 인소싱 방식으로 수행
- ☐ (예산/재원) 11,654백만원('21년) / 일반회계

(단위: 백만원, %)

사 업 명	'20년			'21년 예산(B)	증감(B-A)	
	본예산(A)	추경	결산			(%)
<input type="checkbox"/> 취약계층취업촉진	12,425		6,970 (56.1)	11,654	△771	△6.2

- ☐ (추진근거) 고용정책기본법 제12조(민간에 의한 고용서비스 제공지원 등)
- ☐ (주요 지원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업급여 수급자 등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구직자 또는 실업자
- ☐ 전달체계



□ (전년 대비 주요 개편사항) 전 국민 국민취업지원제도 도입에 따라 서비스 제공 센터 확대

*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70개 센터,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 84개 센터

2 정량지표 평가 결과

□ (참여자 현황) 집단상담프로그램 사업의 2020년 참여자는 총 192,205명이며,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 13,712명, 채용박람회 263명

○ (성별) 집단상담프로그램,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의 여성 참여자 비율은 각각 53.2%(102,259명), 61.9%(8,482명)으로 여성 참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채용박람회의 경우 남성 참여자 비율이 63.5%(167명)으로 남성 참여자 비율이 높음

○ (연령별)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채용박람회는 청년 참여자 비율이 각각 56.6%(108,863명), 50.2%(132명)으로 청년 참여자 비율이 높은 반면,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장년 참여자 비율이 40.1%(5,493명)이 높게 나타남

(단위: 명, %)

	전체	성별		연령별			
		남성	여성	청년 (15~34세)	중년 (35~54세)	장년 (55~64세)	고령 (65세이상)
고용서비스 전체	1,325,058 (100)	463,784 (35.0)	861,144 (65.0)	538,237 (40.6)	383,290 (28.9)	299,872 (22.6)	101,177 (7.6)
역량강화 전체	228,518 (100)	97,677 (42.7)	130,837 (57.3)	119,895 (52.5)	44,845 (19.6)	51,029 (22.3)	12,745 (5.6)
집단상담 프로그램	192,205 (100)	89,944 (46.8)	102,259 (53.2)	108,863 (56.6)	30,739 (16.0)	41,651 (21.7)	10,950 (5.7)
심리안정지원 프로그램	13,712 (100)	5,229 (38.1)	8,482 (61.9)	2,639 (19.2)	4,117 (30.0)	5,493 (40.1)	1,462 (10.7)
취업지원 전체	1,017,639 (100)	341,169 (33.5)	676,414 (66.5)	377,175 (37.1)	331,244 (32.6)	236,242 (23.2)	70,630 (6.9)
채용박람회	263 (100)	167 (63.5)	96 (36.5)	132 (50.2)	101 (38.4)	29 (11.0)	1 (0.4)

주1: 성별, 연령별로 분류불능이 존재하여 각 비율의 합은 100%가 되지 않을 수 있음

□ 만족도 조사 결과

(단위: 점)

	전체 만족도	전반적 만족도	절대적 만족도						주관적 만족도	상대적 만족도
				지원 대상	지원 기간	지원 수준	신청 절차	지도 및 점검		
고용서비스 전체	4.12	4.10	4.19	4.29	4.15	4.08	4.16	4.26	4.16	4.02
취업지원 전체	4.08	4.07	4.16	4.24	4.11	4.07	4.15	4.23	4.12	3.98
채용박람회	3.95	3.96	3.98	4.04	3.89	3.90	4.02	4.07	3.98	3.87

※ 만족도 조사 결과는 1점 매우 불만족부터 5점 매우 만족까지로 구성된 5점 척도 문항의 평균값임

3 정성지표 평가 결과

□ 정성지표별 평가결과

- (사업의 목적과 필요성) 구직의욕 저하, 구직기술 부족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업 취약계층에게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과 구직자 취업역량강화프로그램을 제공
 - 구체적으로 기업채용 정보를 제공하고, 이들이 구직기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력서 및 지원서류 클리닉, 동행면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취업취약계층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공공서비스의 충분한 역할과 의미가 있다고 판단함
 - 코로나19로 인해 노동시장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실업·구직과정에서의 심리적 불안을 극복하도록 지원하는 심리안정지원프로그램은 취약계층의 코로나 블루를 극복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수 있음
 - (법적근거) 고용보험법 제25조 고용안정 및 취업 촉진) 「피보험자등의 고용안정 및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직접 실시하거나 이를 실시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지원 또는 대부할 수 있다.」 로 법률적 추진 근거를 갖추고 있음

○ **(일자리사업 성과)** '20년 목표 173천명 중 78천명 참여하여 45.1%의 실적을 보여줘 저조하고 예산집행률도 66.9%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사업수행이 잘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됨. 그러나 코로나 19로 인해 대면이 어려워지고 “상담”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비대면 참여를 유도하기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비대면 상황에서 인프라의 사용과 관련한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충분한 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 코로나19 발생 직후인 '20.2월부터 전화 또는 화상시스템을 통한 비대면 상담으로 전환하였으나 고령자,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는 IT 인프라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음

- **(취약계층 지원)** 코로나 19 상황에서 심리적으로 더 취약한 계층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고 이에 집단상담프로그램이 6개월간 중지되는 상황에서 사업을 정상화하려는 노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음. 심리안정프로그램의 경우 대체로 유선을 통해 서비스를 대안적으로 제공했지만 심리상담으로써의 환경이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나타남(현장 모니터링 내용)

○ **운영의 적절성**

- **(실행계획 추진)** 코로나19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 프로그램 운영 지침 시행 등 정상적 사업추진에 최대한 노력하였으나 여전히 어려움이 있었음. 그럼에도 유선과 민간화상시스템 등을 통해 최대한 운영을 정상적으로 하려고 노력한 부분은 확인됨. 그러나 채용박람회 대해서는 실적이 나타나지 않으며 자체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약 10여 건이 소규모로 진행되었다고 적시되어 있음

- **(중복의 문제)** 집단상담프로그램의 경우, 여성가족부 새일센터의 경력단절여성 대상 집단상담프로그램과 중장년희망일자리센터의

상담프로그램 등과 중복성이 있음. 대상을 차별화하려고 현장에서는 노력하는 것으로 나타남(내부 자료)

- (제도개선 노력) 별도의 제도 노력은 확인하기 어려움. 다만 채용 박람회와 관련한 채용실적 제고를 위해 일자리 발굴단과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했던 채용박람회 행사 등은 모두 취소되었다고 함. 그러나 '21년도에는 채용박람회 사업의 채용실적 등 효과성 제고를 위하여 지역별로 자치단체, 공공기관, 언론사 등의 채용행사와 연계·협업하여 통합 운영할 예정에 있음